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유산-나주 반남고분군 전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유산-나주 북암리 고분군 전경_1.2-1.5MB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유산-나주 오량동 요지 전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유산-영암 시종고분군 (내동리쌍무덤)

전남도, 마한 옹관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나주 오량동 요지·영암 시종고분군 등 독창적 장례유적 4개소

전라남도는 나주시, 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옹관은 큰 항아리 모양의 토기로, 시신을 넣어 땅에 묻는 장례용 관이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주로 어린이나 일반인의 무덤에 사용했으나,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회에서는 이를 지배층만의 특별한 묘제로 발전시켰다.

마한 옹관고분군은 3-6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길이 2m, 무게 300kg에 달하는 거대 옹관을 제작하고, 영산강 물

길을 따라 운반해 지배층 무덤에 매장하는 체계를 완성한 유산이다. 생산·유통·매장을 하나로 연결한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마한만의 독창적 장례 문화다.

이번에 신청하는 유산은 나주 오량동 요지, 나주 반남고분군, 나주 북암리 고분군, 영암 시종고분군 등 4개소로 구성된다. 오량동 요지는 77기의 가마를 갖춘 옹관 생산지이며, 반남·북암리·시종고분군은 이 옹관이 실제 매장 사용되는 지배층의 무덤이다.

전남도는 2025년 4월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에 착수해 자문회의와 실무협의 거쳐 유산명,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구성유산 범위 등을 확정했다. 9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12월 17일 최종보고를 완료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는 본등재를 위한 필수 선행 절차로, 신청서 제출 후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잠정목록 등재 이후에는 등재신청서를 작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마한 옹관고분군은 문헌 기록이 부족한 마한 문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라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본 등재까지 나주시, 영암군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청 심사를 거쳐 하반기 잠정목록 등재 등재신청서 작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농업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어린이 복합문화관 인식 조사

9일까지 온라인·모바일로... 관람객 중심 박물관 운영 반영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관람객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박물관 어린이 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한 도민 인식을 수렴하기 위해 9일까지 총 2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관람객 방문 실태 조사다. 관람객의 방문 목적, 전시 및 편의 시설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박물관 운영 개선과 전시 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농업박물관이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한 인식 조사다. 어린이 대상 문화·체험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등을 파악해 향후 건립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농업박물관 대표 누리집(www.jam.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박물관 내 비치된 안내 유인물의 QR 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농업박물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전남도 농업의 역사와 가치, 미래 농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교육·체험 중심의 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김옥경 전남농업박물관장은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람객 중심의 박물관 운영과 전남도민의 농업 특색을 살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적극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정 기자

고흥작은영화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군민 환경의식 개선 및 폐기물 감량에 앞장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고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회용품 없는 고흥작은영화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1회용품 없는 영화관을 만들기 위해 고온 세척기 1대와 살균소독기 2대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대화용 컵 3종과 회수함을 설치해 대화용품 사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람객은 영화관에 비치된 대화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마신 뒤 회수함에 반납하면, 해당 컵은 고온 세척과 살균소독 과정을 거쳐 재사용된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고흥작은영화관을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고흥작은영화관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일상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



감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깨끗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군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고흥작은영화관에 이어 군청사 1층에 있는 카페에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화용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 내로움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자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자

금이 있습니다

농자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